

가상의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디지털 폭식 사회

이광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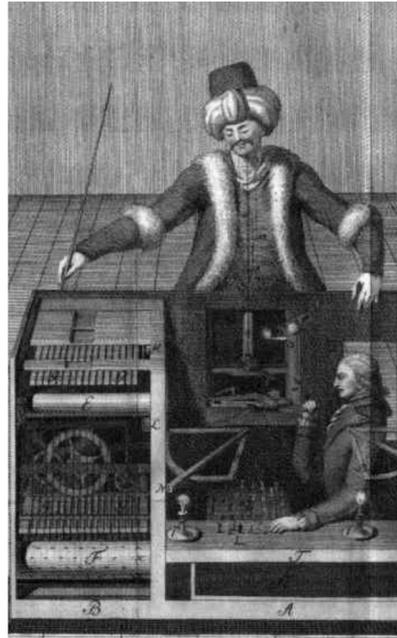
‘평점사회’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람과 사물을 평가할 수 있다. 호불호뿐 아니라 별점이나 좋아요, 댓글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상품에 품평을 하는 것은 자유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별점과 댓글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사실 평점사회 바탕은 플랫폼 기업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플랫폼은 “데이터, 영상, 배달, 돌봄, 아르바이트(시간제노동제), 자동차, 잡자리 등 유무형 자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주한 온라인 정거장과 같다”고 본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들이 이를 돕는 플랫폼 장치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우리 사회는 잠시 멈추는 경험을 했다.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톡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것과 연동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다음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역사적으로 카카오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개개인이 얼마나 카카오톡에 ‘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카카오 또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시장 잠식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체스를 두는 자동기계인 ‘메카니컬 터크’.

많은 영향과 나아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 지를 조망하는 책이 나왔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디지털 폭식 사회’.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가 펴냈으며 2022 우

수출판권으로 선정됐다. 저자는 지금까지 ‘포스트디지털’, ‘디지털의 배신’, ‘데이터 사회 미학’과 같은 테크놀로지와 사회, 문화가 상호 교차하는 접점에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책을 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플랫폼의 이점은 ‘분산돼 있는 자원 공급자를 수요자가 시장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른바 경제 행위자들의 자원 교환의 효율성을 높인 물류 병합학에 이바지해왔다는 논리다. 자원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고 신생의 불완전 노동시장을 만들고 유연근로와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이 권력이 될 때 발생한다. “플랫폼에 매달린 이용자의 일상 활동은 수시로 감시되어 데이터로 쉽게 치환되고 각자의 취향은 알고리즘 분류 처리를 통해 미래 구매력 예측 지표로 쓰인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은 소비자·노동자·시민 데이터의 수집과 감시 없이는 그것의 제 기능이 작동 불가능한 ‘기생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인다.”

저자가 책에서 주요 개념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피지탈’(phygital)이다. ‘피지컬’(physical-물질)과 ‘디지털’(digital-비물질)이 합성된 신조어다. 디지털과 물리적인 것의 혼합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저자는 “플랫폼 앱처럼 디지털 세계의 기술 장치가 물질계의 지형과 배치를 좌우하는 신기술 과밀도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또한 저자는 ‘피지탈 플랫폼’ 개념을 유의해서 들여다본다. 가상의 플랫폼 자체가 우리의 현실 감각을 토대로 이전과는 다른 통제 권력이 됐다는 의미다. 저자는 나름의 이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점차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현실 속에 디지털 ‘독성’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바다 흐름의 비밀=바닷물은 어디서부터 흐를까? 바닷물은 대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뭄과 폭염, 태풍과 홍수는 왜 발생할까.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 속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 미래 지구를 예측할 기본 지식서가 발간됐다. 책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던 대양의 해수 순환이 미래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성사·8000원>



▲침묵의 지구=우리는 그간 눈에 띄는 동물들을 위주로 멸종위기를 논해왔다. 책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곤충에 대해 얘기한다. 인간에게 외면받으려 사라져가는 곤충은 지구 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일원이기도 하다. 책은 곤충의 감소 실태와 원인을 언급하며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곤충이 지구에 등장해 육지에 진출한 뒤 감소하게 된 상황, 곤충 감소의 원인까지 낱알이 살핀다. <까지·2만2000원>

▲교육의 미래와 학교혁신=이 책은 세계 공교육의 표준이었던 미국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새로운 학교 모델의 이상을 쫓는다. 교육 현장과 배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며 명료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위해선 질 높은 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교원

정책이 필요하며 우수한 교원 확보 없이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고 본다. <살림터·1만9000원>

▲멘탈리티=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 등 전설적인 NBA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해 온 팀 그로버가 경험을 토대로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 최정상에 도착하는 방법을 책을 통해 인도한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와 전설적인 선수들을 전담 코칭해온 경험 속에서 팀 그로버는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본능들을 관찰해냈다. <푸른숲·1만8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기 있던 책 어디갔어?=사라진 책을 찾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됐다. 책을 입에 물고 달아난 개, 책을 찾으려면 개를 찾아야 하는데... 한페이지 한페이지 가득 채우고 있는 빨강, 초록, 파랑 강렬한 원색의 그림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추격전이 책을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머금게 한다. <꽃빛·1만4000원>

엄마를 잃었으니까, 세상에 제대로 보상 해주지 않아 복수할 자격이 있지”라는 한나의 말. 위태로운 열세 살 소녀 한나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책. <그레가 숨쉬는 도서관·1만4000원>

▲도둑의 수호천사=물건을 훔치며 즐거움을 느끼는 주인공 한나, 한나의 방황은 음주 운전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면서 시작됐다. “내 도둑질엔 다 의미가 있어.

▲쪼비만두=냉장고가 고장나면서 녹아 내린 음식들이 쪼비로 변했다! 호느적거리는 추수를 들이치는 낙지부터 날카로운 집게발 꽃게 등 능력을 갖추게 된 음식 쪼비들이 강대한, 강소라 남매를 공격한다. 분노로 가득찬 음식 쪼비들의 지저분하고 치열한 전투 이야기 <머스트비·1만3000원>

인간관계 힘들시나요? ...타인의 마음부터 이해해 보세요

타인의 마음

김경일, 사피엔스 스튜디오 지음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어디 가면 당신 꺼떠보지도 않아.”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사회관계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은 나아가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사회문제로 확대된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으로써 그 사람을 완벽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간 ‘타인의 마음’에서 “가스라이팅”은 상대에게 ‘생각의 무기력’이라는 습관을 심어준다. 우리 뇌는 충격의 크기보다는 빈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특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을 하다’와 같은 동사가 유난히 적다고 분석한다.

가스라이팅은 특히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당하기 쉽다. 한국사회는 ‘피로사회’라고 부를 만큼 많은 이들이 지쳐 있고,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 가스라이팅하기가 더 쉬워진다.

‘인간관계가 힘든 당신을 위한 유쾌한 심리학 공부’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tvN 디지털 지식플랫폼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인기 콘텐츠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바탕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수직적 권력관계와 심리적 지배관계를 악용해 상대의 심리를 통제하는 ‘가스라이터’를 비롯해 틈만 나면 남을 욕하는 사람, 나를 남과 비교하는 사람, SNS 게시물에 나쁜 댓글을 다는 악플러,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등 누구나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분석한다.

저자는 “심리학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험한

수많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왜 그러할까’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처방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며 “비록 내게 힘들을 안겨 주는 타인일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나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측면들을 잘 다스려 모두의 생존력을 함께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강조한다.

최근 사회적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심리상태를 감안하면 누구나 적절한 상담과 치유가 절실하다. 매일같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권의 막말 또한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들 말한다.

타인의 심리를 읽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요즘의 사회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간 ‘타인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사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막막한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도록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샘터·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